

썩썩이 어린이집

2003년 1월

썩썩이 어린이집 소식지 제20호



따뜻한 말 한마디

-법정스님

우리가 무언가에 싫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의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순 없죠.

악기와도 같아요.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
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지요.

현인들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그런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세요.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 보세요.

먼저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그들로 인해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긁적이며 고르던 그 마음.
처음 휴대폰을 들구 만지작 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며
넓은 미소를 짓는 자신을 찾을줄 아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선물해요.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라고
하면서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짜임새

특별기획 “노무현 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 . . 편집부 4

씩씩이 아이들 1 큰외반 친구들 6

씩씩이 아이들 2 푸른들반 친구들 8

씩씩이 아이들 3 맑은샘반 친구들 10

사진으로 보는 썩썩이 송년 가족 한마당 . . . 편집부 12

소개합니다! 배지용 보육사랑방모임대표 15

부모글 박재영 자부 16

부모글 홍동선 자부 18

부모글 김은실 자모 19

씩씩이 아이들 4 졸업하는 친구들 20

아이랑 웃음이랑 “푸하하하” 편집부 22

행사보고 “썩썩이를 둘러싼 이런일 저런일”
. 편집부 24

회계보고

후원내역

썩썩이

노무현 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김중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되었다.

대통령의 교체는 우리 나라의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보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보육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공약들을 정책으로 실시할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보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4대 비전중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아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약은 여성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가정과 직장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보육료 절반 지원
-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
-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정착
- 육아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 공적 보육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

이러한 공약들의 상당수는 보육관련 단체들이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차례의 정권(YS와 DJ)동안 나름대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나 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보육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목표가 보육서비스의 양적 공급 확대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점 관련 단체들의 감시(?)와 주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약들이 주로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보육정책을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여성정책에 부수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유지를 위해 출산과 육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이점 보육정책이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이다.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들을 시행하다 보면 보육분야의 예산이나 보육서비스의 총량은 분명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대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양만 증가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커다란 방향의 확립없이 표피적인 대안들만 만들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약들을 정책으로 전환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분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교육분야에 들어있는 유아교육법의 제정 문제가 그렇고, 보육분야 내에서도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과 보육교사, 보호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모순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가 역시 시민단체의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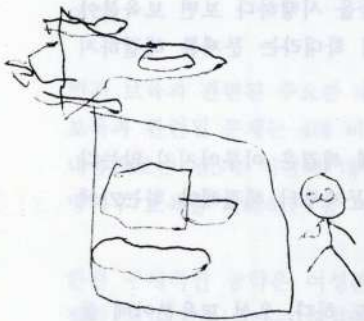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사고나 행동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필요한 보육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은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지인 '우리네아이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군 장갑차 사건 이런 저런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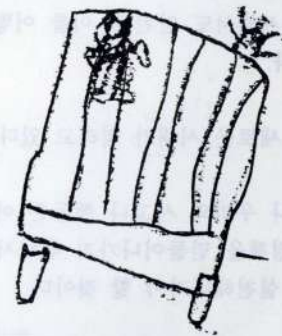
★수정어 (7살)

장갑차가요 와갔구요 누나들을요 바퀴로 깔러가구요, 누나들이 죽었어요. 미국 아저씨들이 북쪽 사람들 오면 죽일라구요 우리 나라에 있어요. 북쪽 사람들하고 착하게 편지도 보내고 화해해야 해요. 그러면 미국 아저씨들 필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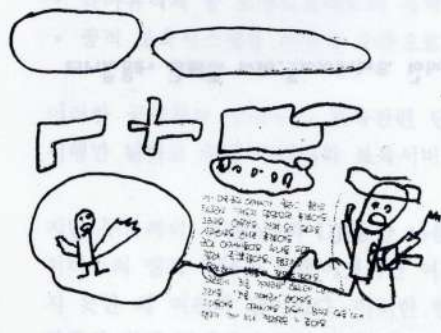
★성윤어 (7살)

노란 거는요,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촛불 들고 있는 거예요. 빨간 거는요 경찰들이 방패 갖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이것두요 경찰 버스예요. 미국 군인 아저씨들이 탱크 끌고 가다가 누나들 깔러구요 가가지고, 사과도 안하고 우리 잘못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벌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 놀이요 우리한테 사과하면 좋겠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못가게 해요.



★달재 (7살)

남쪽 아저씨들이 불러 갔고, 전화해서 미국 군인들이 왔어요. 지킬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 가라"하니까 "싫어"라고 그랬고 "지켜야 된다"라고 안가요. 나라에서 말로 해야되요. 미국 군인 아저씨들이 사라져야 되요. 가야되요.



★술찬어 (7살)

미국 군인 아저씨가 칼하고, 총하고 탱크하고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요 사과하고요 하면 좋겠어요. 군인 아저씨들이요 누나들 두명 깔러 죽였잖아요. 탱크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그래요. "죄를 가져라" 해야 되요. 그 다음에요.. 아저씨가요 더워서 잠자고 있을 때 탱크가 가서 누나 깔러 죽은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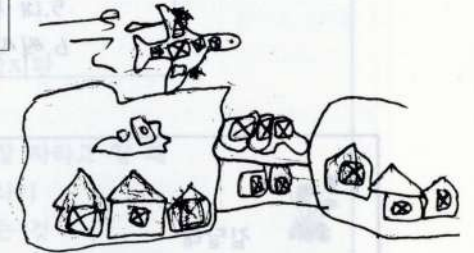
★증현이 (7살)

밤먹어서 튼튼해서 잘못 한 미국 군인들 혼내주고요. 혼내줘서 "죄가 있다"하면 한번만 봐주고요, 장갑차하고 탱크하고 총하고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한국 차를 쓰라고 해야지, 싸우는 차는 갖고 오지 말라고 해야해요. 싸우는 거 연습할라고 갖고 와요. 옛날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웠었는데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해서요, 전쟁이 났어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화해하는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안간다고 했어요. 미국 군인들이요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군인 아저씨들이요 중학생 누나들을 탱크 갖고 죽였어요.



★채석 (6살)

헬리콥터랑 배랑 비행기가 그냥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누나들이 죽어서 엄마 아빠들이 슬프겠어요.



★유빈어 (6살)

누나가요 어디가는 중인데요, 화가 나서요 누나가요 친구한테 모른척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탱크가 그냥 바퀴도 없는데 동그라기만 한데 그냥 굴러갔어요. 그래서요 언니가 위험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서 생각이나보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탱크가요 언니들을요 깔고 가버렸어요.



★윤지 (6살)

언니들이 가고 있는데요, 미국 장갑차가 깔고 갔어요. 예기하고 가다가 죽었어요. 장갑차 아저씨들 벌서고 이렇게 무릎 꿇어야 해요.



★달순 (6살)

탱크가 와서요 누나 두명이 죽었어요. 그러구요 천사들이 막 울었어요. 탱크 와서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했어요. "별을 줘라, 별을 줘라" 해야 되요. 꽃이 울고 있어요. 엄마하고 오빠하구요 멍멍이, 고양이, 아빠도 "별을 줘라, 별을 줘라" 했어요.



푸른들의 생각 엿보기

푸른들 친구들의 어린생각 저런생각

1. 1살 더 먹으면 뭐가 좋아질까?
2. 엄마, 아빠가 좋을 때는 어떤 때?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4. 그럼 제일 싫은 건?
5. 내 몸 중에 제일 멋진 곳은?
6. 씹씹이가 없어진다면?



김달래

1. 친구들이랑 안 싸우고 놀 수 있어요.
2. 화내지 말고요 조용히 텔레비전 볼 때
3. 윤기성
4. 사람들하고 뽀뽀하기
5. 볼
6. 씹씹이에 올 수가 없고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김보람

1. 이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2. 안아 줄 때
3. 사과
4. 파인애플
5. 식도-음식물이 잘 녹아서 내려가요
6. 슬플 것 같아요.
우리동네가 바뀔 것 같아서.



선종현

1. 키가 커질 것 같아요
2. 안 때릴 때
3. 멍멍이
4. 없어요
5. 무릎-애기가 앉을 수 있잖아요.
6. 친구가 없어서요 집에서 씹씹이 가고 싶은데 슬퍼요.



윤기성

1. 생각이 안나요.
2.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키가 쑥쑥커서
3. 노래 부르는 것
4. 없어요
5. 볼
6. 집에만 있어야 돼요.



권혁규

1. 차타고 비디오 보고 수영하고요
2. ??????
3. 엄마, 아빠
4. 비디오
5. ??????
6. ??????



홍승우

1. 혼자 밥 다 먹어요.
2. 엄마 아빠가 안아 줄 때
3. 기린- 작하니까
4. 코끼리-돌먹고 나한테 덤벼요(만화영화 돌리의 영향인 듯)
5. 발- 코끼리랑 싸움하면 발이 이겨요
6. 울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어지니까요.



정승현

1. 기분이 좋아요. 많이 놀 수 있어요.
2. 안아줄 때
3. 부침개
4. 고기, 미역
5. 다리-걸는 게 좋아서요
6.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씹씹이 못 가니까요.



정소연

1. 웃도 혼자 개고요, 쉬야도 혼자하고,
똥꼬도 혼자 닦을 수 있어요
2. 똥 사줄 때
3. 씹씹이 가는 것
4. 큰푸레이크 안 먹어요
5. 배꼽-만지면 피가 나오
6. 이모가 우리집으로 이사하면 좋겠어요.



박세혁

1. 자동차 많이 갖고 놀아요
2. 사진 찍어줘여
3. 양말
4. 김밥
5. 발
6. ??????



김지완

1. 몰라요.
2. 엄마가 잘 자라고 할 때
3. 그림 그리기
4. 코피 나는 것
5. 목
6. 집에서 노를 거예요.



김민주

1. 학교 갈 것 같아요.
2.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아빠는 청소기 할 때
3. 엄마
4. 머리 감을 때
5. 머리- 묶고 다닐 수 있어서요
6. 울거 같아요.



김현성

1. 채운이형 처럼 글씨공부 할 수 있어요.
2.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 줄 때
3. 까까- 맛있잖아요.
4. 엄마가 까까 안 사줄때요, 아빠가 모자 안 사줄때요.
5. 머리 -연필처럼 꺼머잡아요.
6. 못 올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없어서 슬플 것 같아요.

맑은샘 반 그것을 알려주마

이름(개월수)	배정반 (03년 1월 현재 30개월)	박종모 (03년 1월 현재 23개월)
별명	마스크맨 (검케리를 능가하는 얼굴표정 연기의 달인)	먹기쟁이 (끊임없이 오래도록 저치지 않고 먹는다)
밤먹는 스타일	'쫄쫄 쫄쫄 먹는건 먹는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크기라도 상관없다. 한 입에 꽉차게 한꺼번에 몰아넣어 먹는다. 일명 일공밥 먹기	내 위장은 항상 100%채워져 있어야 한다. 단1%라도 비게 되면 짜증이 난다. 일명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잠버릇	머리가 그려있는 초록색 파란색 베게 두 개 들고와서 번갈아가며 베게 까불다가 한순간 침착해지면서 눈 감빡거리는 횡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꿈나라로~	두세달 전만해도 기저귀잔 엉덩이를 딱! 딱! 소리가나게 두드려줘야 잠을 잤으나 지금은 이모의 조용한 노랫소리를 들으면 잠이 든다. 그래도 잠이 안 들면 눈썹을 눌러주면 어느새 코~
애별말	쉬하고 싶을 때 → 이모 이모 쉬 집에 갈 때 →아이야(안녕히 계세요!)	형아들 깨울 때 →이녀나(일어나!) 혀도 기저귀갈 때 →또짜짜(똥쌔어!) 형아들 부를 때 → 형(형) 놀 때 →가게이꼬(가위바위보)
애별짓	검 케리를 능가하는 완벽한 표정연기로 이모들이 식사하시거나 간식 먹고 있을 때 이모 코앞에다 얼굴 들이밀고 애교떨기. 줄 때까지 게~속 !!	형아, 누나 이름대면 누군지 알아 맞추기 웃 입을 때 윗도리에서 얼굴이 나올 때 이모보며 '까꿍'하기
좋아하는 놀이	자동차 양손에 들고 다니면서 차놀이 하기	큰 자동차 엉덩이 치켜들고 밀고 다니기
특기	1.민망할 때 가슴 내밀면서 빠기기 2.형아들 활동할 때 그 반인척 하면서 다 따라하기 3.가무를 즐긴다.	1.이모가 냉장고 문여는 소리만 들려도, 비호처럼 달려와 부엌에 와서 앉아 간식 기다리기 2.장난감 일렬로 정리한 뒤 짹짹씩 때애하기 3.씩씩이의 험하고(?) 굶은일(?) 돌선수범하여 나서기
기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크고 분명하다. 베게도 좋아하는게 확실하게 있고, 자동차 중에도 애착을 하는게 꼭 있다.	자기 작품활동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자기작품을 가리키며 '종모꺼지' 하고 다른 아이들 작품을 보면서도 '혀도꺼지' '정빈꺼지' 한다.

이름(개월수)	정연도 (03년 1월 현재 21개월)	유아은 (03년 1월 현재 18개월)
별명	양은냄비 (곰방 처갓가래다가도 어느새 턱내밀면서 울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지고)	여우(생각하는 건 5살,)
밤먹는 스타일	매운김치를 먼저 입에 넣고 식욕을 돋군후 밥을 먹는다. 매워도 잘 먹는다. 국물 한방울도 남김없이 씹!씹!씹! 밥풀하나라도 남기는 법이 없다.	먹을만큼 다 잘먹는다 제일 좋아하는 건 김에다 밥싸먹기. 오이나 야채도 잘 먹고요, 고기도 매우 잘먹는다.
잠버릇	엎드려서 등 토닥거리려고 눈썹과 눈을 지그시 눌러주면 이내 잠이 든다. 오래자고 폭~ 자는편 깨울 때까지 잔다.	정빈이 종모 혀도 개우느거 한참 구경하며 지켜보다가 졸음이 오면 졸린눈에 침주며 크게 또다 가 이모가 안아주면 잠이 든다.
애별말	동화책 볼 때 → 이마 이마(이모 이것봐요) 집에 갈 때 →아이야(안녕히 계세요!)	잠 올 때 → 아녀아녀(안아주세요!) 엄마 보고싶을 때 →엄마 맘마! 이모에게 부탁할 때 → 이와(이리와) 강아지 소리날 때 →멍멍 멍멍!
애별짓	울거나 짜증내다가도 "정혀도?" 하고 부르면 "네"하고 대답하며 웃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이모에게 부탁할 일 있을 때 이모의 어깨를 두드린 다 천천히 이모가 들어줄 때까지	거울보다가 갑자기 혼자 발구르며 웃기 오빠들 뛰어들 때 이모를 온신처럼 파하기 이모 모라고 손짓할 때
좋아하는 놀이	볼풀장 놀이 자동차 놀이	피아노 치기 망치놀이 촉각놀이 악기놀이
특기	1.뜸나는 대문 솜파에 앉아서 책보기 2.남의 엄마 내 엄마처럼 맞이하기. 3.이모한테 혼나거나 하고 싶은 것 못할 때 그 자세 그대로 멈춘 뒤 입을 최대한 모아서 아래로 내밀면서 아랫입술을 더 쪽 내민다. 코는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가 살짝 살짝 떠서 분위기를 파악한다.	1.가무를 즐긴다. 노랫소리나 악기소리가 나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린다. 2.엄마가 보고싶을 때, 졸릴 때, 아주 슬픈 눈을 하면 눈가에 눈물이 순간 흐를 듯 고이고 이모에게 간절하게 말한다. 맘마~ 맘마맘마. 3.가끔 눈에 침주고 인상쓰기
기타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바깥나들이시 하수구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주저 앉아서 꼭 확인후 놀아야 일어선다.	아직 말을 잘 못해도 종교 없고 허구 안하구가 확실하다. 기면 꼬덕! 꼬덕!!, 아냐면 설레! 설레!!

사진으로 보는 씩씩이 송년 가족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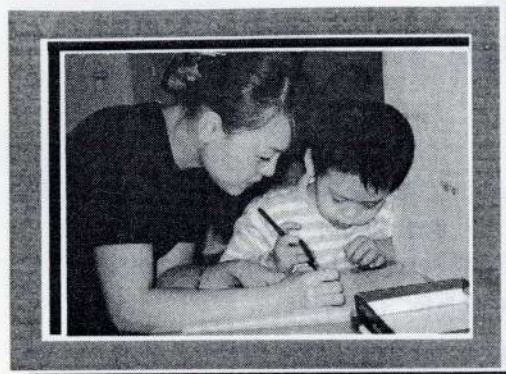
씩씩송년가족잔치 특별이벤트!!
첫째마당 - 손도장찍기
"아빠손 엄마손 누나손 내손 우와 멋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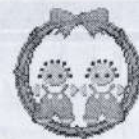
씩씩송년가족잔치 특별이벤트!!
둘째마당 - 추억의 뽑기
"엄마가 해준 뽑기가 최고예요~"



씩씩송년가족잔치 특별이벤트!!
세번째마당 - 얼굴꾸미기
"엄마 나 이빠? 엄마 사랑해!"



씩씩송년가족잔치 특별이벤트!!
네번째마당 - 우리가족 소원적기
"엄마의 새해소원은 뭐예요"



씩씩송년가족잔치 특별이벤트!!
다섯번째마당 - 추억의 동전던지기 게임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해야돼요!"



엄마아빠만의 특별 이벤트 팔씨름대회
진지한 한 판 대결!! 각본없는 드라마!!
"잘한다! 잘한다! 우리아빠 잘 한다!!"



'죽' 썩썩이 천하장사 탄생!!
부상은 천하장사 소시지 1통!!
"엄마 아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짱 멋져요"





모두모두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와! 씹씹이 가족이 모두 모였네!
"미나이모! 빨리 등극 보구 싶어요"



엄마, 아빠들의 혼신을 다한 등극
'흑부리 영감 박을 타네'는 끝나고~
"아저씨! 아줌마! 너무 너무 재밌어요"



춥불 점화!!
모두들 2002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주위사람들의 고마움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이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참 백두할아버지는 '송년가족한마당' 때에는
바빠서 못 오시고요, 그 다음 다음날 오셨어요!
"백두할아버지 내년에도 또 오셔야돼요!!"



소개합니다!!

‘관악주민연대 보육사랑방모임’에 대하여

관악주민연대가 보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 구립어린이집 비리사건에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관악구에 있는 많은 구립어린이집들 중,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악주민연대는 구립어린이집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관악구 의회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구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보육정보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보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악주민연대는 관악보육정보센터에 운영위원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실업 등의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육 문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가 이번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운영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보육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활동가 모임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회원 부모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보육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1년 10월 보육사랑방 모임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모임에서는 18여명의 부모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이야기되어 졌습니다.

리고 이런 논의 가운데 부모들의 지속적인 모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결과로 ‘보육 사랑방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로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 속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단지 부모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올바른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관악주민연대 보육사랑방 모임’은 이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부모들이 보육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하고 풀어가갈 때 보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사회가 조성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종모아빠에서 욕심쟁이 흑부리 영감으로!!

-종모아빠 박재영

지난 11월 어느 날인가 부모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러 저런 상황도 없이 씩씩이 송년잔치때 부모공연팀으로 뽕혀 동극의 배역을 맡게 되었다.

그후 대본을 받았지만 그렇다 할 열의와 시간적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연습에 소홀했다. 후속작업으로 잠시 그때를 회상해 보자.

#1. 첫 연습날!

오늘이 함께 연습하는 날인가 보구나. 이러저런 합리적(?) 핑계로 빠지고 말았다.

그후 들리는 이야기는 참으로 멋있었다.

다들 너무나 잘하니 연습을 많이 해야 할거라는 것이다. 차츰 두번째 연습날이 다가온다.

마음이 쿵쿵거린다. 사무실 한 귀퉁이에 앉아 대본을 들여다보았다.

주절이 주절이 달려있는 대본을 읽자니 이런 저런 이야기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첫구절 지문이 있는데 립싱크로 따라서 부르면서 “나는 나는 흑부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첫소리가 잘 열리지 않을 뿐더러 음감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잘 되지 않는다.

내 할말역할을 맡은 성윤엄마에게 물어 봐야겠다. 전화를 했다.

“나, 재영이. 여여사(성윤엄마의 성이 여씨입니다!!) 잘 지내는 감. 글고 연습 잘 했는감.”

“다들 잘 하던데, 형 연습 많이 해야 할 걸.”

“그런데 내 대본 첫 구절 말이야...”

“그건 첫 구절이 ‘저팔계’ 노래인데...” 목소리를 가다듬은 할머니의 말과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여 매료되는 목소리와 완벽한 높낮이로 끝을 맺었다. 그후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전화를 끊는다. 그런데 첫구절의 노래 대

사가 공연때 까지 애를 먹었다.

오늘은 그만 접는다.

#2. 아름다운 풍경

연습시간이 다가오자 오전 시간을 대사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로 하고는 설새없이 연습을 한다. 그런대로 감정을 넣고 톤을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아마 옆 사무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습지 않을까 한다.

“나는 나는 흑부리 왜 나를 싫어하지! 나는 나는 흑부리 도대체 모르겠네.”

지난 시절 어느때인가 비디오 촬영에 깊이 관여했던 적이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배우역할이나 연출쪽보다는 촬영이나 편집쪽의 일이 나에게는 맞는것 같다. 그런데 지금에는 자발적인 참여인지 잘 모를 일이지만 배우를 하고 있다.

음조리면서 몇 시간째 지워져가는 대사들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다 외었다. 부담이 되었는지 조금은 이른 시간에 씩씩이에 도착하여 종모와 저녁을 먹으면서 연습시간을 기다린다. 첫번째 연습에는 욕심쟁이 흑부리인 나만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흑부리1’이 나의 역할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도 한다. 두번째 연습에는 착한 흑부리와 나의 상대 할머니가 참여하지 못했다. 오늘은 내가 익숙하지 못한 흑부리1의 대사까지 하면서 연습을 해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첫번째 대사부터 꼬인다.

연출을 맡은 달래 어머니께서 지도를 하지만 강도를 높일 수 없는 지도를 한다.

서로에 대한 교류가 없었던 것도 있고, 또한 여러 조건상 그러했으리라 짐작한다.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대로 오늘 연습은 마무리를 했지만, 한층 더 잘하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집에 가서 오늘의 격조를 살려서 “나는 나는 흑부리...”했더니, 종모가 더 흥이 나서 “나는

나는...”하며 손목까지 흔들어대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 어쩌면 이런 풍경이 우리가 더 많이 가져할 시간이며 바라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부모들을 참여시키는 첫번째 조건도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획했으리라. ‘고마움이 남는 송년회가 되겠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대에 설 때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도 난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는 것이기에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는 했지만 조바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3. 드려 감을 잡다!

연습은 몇차례 계속에서 했지만 시작에서 오는 첫구절 노래 대사가 변함없이 걸린다.

지금에는 그때의 기억을 살릴 수는 없지만 달래 어머니께서 답답했는지 저팔계 노래를 해주기에 이르렀는데 절대음감에서 밀리는 나는 또 그 노래의 음감을 놓치고 말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쯤에 시끄러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것 또한 선곡도 못하고 있었고 여러가지로 난감했다. 그러나 연습중에 분위기를 띄우고자 가장 말이 많고 웅성수설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가.

“브로드웨이에 진출한다”던가, “보물이 든 박을 많이 준다면 흑을 열개라도 달고 다닐 수 있다”든가 등등... 이런 푼수짓 뒤에는 조바심 나는 공연이 숨어 있었다.

나의 괴로운 연습과는 관계없이 연습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서로의 얼굴에 익숙해지고 소품들을 논의하거나 준비물들을 일러주면서 다가오는 실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오늘도 또 어느때와 다름없는 참여에 가까운 연습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항상 그랬듯이 차에서는 대사 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영감(!)이 잡히는 것이다. “나는 나는 흑부리 왜 나를 싫어하지...”하는 대사가 그럴싸하게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마지막 리허설을 앞둔 시점의 일이

라 마음 한 구석을 쥐어 잡고 있던 중압감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장담 못하는 본무대가 암담하다.

#4. 다음은 브로드웨이 순회공연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3시간 전에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씩씩이의 30명을 작은 방에 묶어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만족할 만큼 연습이 되지 않아서인지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대사를 외우고, 첫구절 노래에 대한 부담감은 어디로든 사라지지 않는다.

송년회 행사는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게 잘 진행되고,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순서가 남았다. 부모들의 열성적으로 망가져야 하는 바로 그 동극 ‘흑부리영감 박을 타네’의 막이 오른다.

뒷부분에 오는 나의 순서는 앞 배우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나의 대사와 노래만을 되내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의 대사는 시작하고 극은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욕심쟁이 흑부리역에 종모아빠이자 김진숙씨와 함께 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라고 끝을 다하고는 큰 실수 없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런 공연에 감사를 했다.

처음이자 아마 끝이 될지도 모르는 배우에 대한 깊은 고뇌만을 간직하고... 깊어가는 겨울 쪽~ 발을 펴고 잘 수가 있겠구만.

송년회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씩씩이의 개구쟁이들은 나를 ‘종모아빠’에서 ‘흑부리영감’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다닙니다.

그동안 연습에 함께 해 주신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씩씩이와 종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층 가깝게 이웃이 된 분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명성황후’ 이후에 또 하나의 걸작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은 “흑부리 영감 박을 타네”

아들과 함께 고구마 밭으로!

-승우아빠 홍동선

이른 가을! 랄랄랄라 드디어 출발이다!

‘누군가 얘기했지, 소풍은 가는 것도 즐겁지만 소풍 가는 전날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일것이라고!’ ‘내일 승우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농부 아저씨의 고마움? 엄마가 승우를 임신했을때 아빠가 군고구마를 늦게 사다주어서 혼난 얘기?, 이런 저런 설렘으로 밤잠은 설쳤지만 그래도 너무도 기분 좋은 출발이다!’

등에는 오늘 하루종일 맛있게 먹을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 있고, 승우의 앙증맞은 고사리 같은 손을 쥐고 함께 아장거리며 걷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집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였다. 가는 동안 문득 오늘이 있기까지 지내왔던 산고(?)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물론 가족끼리야 놀러다닌적이 많았지만(?)은 승우 놀이방에서 다같이 간다고 하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 쓴것도 사과할겸해서 꼭 참석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가능하면 모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였다.

승우가 다니는 놀이방의 아이들도 살펴보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교육의 장단점도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은 보람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 무엇보다도 승우가 처음으로 속한 사회 집단에서 식구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날씨는 비록 맑지는 않았지만 즐거운 소풍 출발에는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 아마도 우리가 제일 처음 왔나 보다. 조금 후에 이모들 및 식구들이 와서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같이 출발하였다. 어휴! 어쨌든 아이들이란! 버스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군!

1차 집결지에서 점심과 함께 인절미와 순두부를 만드는 놀이를 하였다. 내가 직접 떡매질을 해서 만든 인절미를 씹씹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확실히 직접 만들어서 인지 정말 맛이 있었다. 놀이 후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 시간이다. 역시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점심 시간이다. 집사람이 맛있게 싸준 김밥 등을 승우와 함께 여러 가족들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승우도 친구와 즐거워하는 모습이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버렸다. 어찌 이런일이! 정말 아쉬웠다. 식사를 하고 나서 식구들끼리 간단한 놀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버스안에서 보물찾기한 상품을 주면서 놀이를 했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못되지만 그런데로 식구들끼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드디어 고구마 밭이다. 예상은 넓은 고구마 밭에서 한가롭게 아이들과 고구마를 캐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장소도 협소했고, 사람들도 우리 식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간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승우가 잠을 자고 있어서 같이 고구마를 캐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전반적으로 야외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같이 나 또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만 가지 않아서 인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놀이방 식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미련이 남지만, 훗날 승우가 생각할 때 아빠와 함께 고구마를 캐러 가서 즐겁게 놀았다는 추억의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고생하는 이모님들에게 고생한다는 위로의 시원한 생맥주 한잔이라도 대접 못한 것이 죄송하고, 다른 부모님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점이 너무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씩씩이 놀이방 가족과 아이들에게 언제나 행복과 따스한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니 이모님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제발 참석 안하면 아이 퇴학시킨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서먹할 수도 있었던 시간을 친절하게 해주신 세혁이 어머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여행

-세혁엄마 김인실

“세혁아! 일어나~” 해야만 일어나는 세혁이가 오늘은 “엄마 일어나세요”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혁이와 엄마가 소풍을 갑니다.

기분이 설레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약속시간까지 뛰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흔들리는 차속에 마냥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흐리다 갠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오늘의 이 자연이 세혁이의 눈과 코와 귀에 마음에 계속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얀 쌀밥을 절구에 ‘쿵더쿵’ 찧는 모습에 세혁이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이 재밌나 봅니다.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된 세혁이와 승우. 그 순간만은 마냥 놀게 놔두고 싶었습니다. 더럽지 않은 흙이 마치 맛있는 초코렛입니다. 한참을 내리는 장대비에 우리 아이들의 날개가 잠시 접히고 서서히 갠 하늘 위에 오후의 물이 듭니다.

우리 아아들의 꿈처럼 세혁이의 꿈처럼 그렇게 물이 듭니다.

이모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뒤로 한채 우리 세혁이는 부지런히도 그날밤 잠이 듭니다.

씩씩이 형님들이

달래움
달래움
사랑해

박태일

토요일날
채식 요리

달순아 그동안 제멋있어
달순아오 바라 해여저
해잘있어 이종현

체석이에 제 이종현
체석아 그동안 너랑 놀
이들너랑 놀데 재밌
어써그레서너놀기 좋았
어그때재밌었어내가너
해여저야해 혼나지말고

♥ 달재의 못다 한 이야기 !!

"아~휴 이거 얘기 하면 안되는데...
이모,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아! 유빈아, 윤주야, 은희야,
달순아, 윤지야 (주로 여자친구들!!)
사이좋게 놀꺼지, 사랑해.
동생들아, 올게.
엄마가 씹씩이에 가라고 하면 올게"

♥ 종현이의 못다 한 이야기 !!

"인해이모..네- 나한테 물감놀이도 해주게하고요,
게임도 알려주려고요.우리들도 돌봐주고요,
또 우리들 밥도 날라주고요. 고마워요. 끝이에요.
수연이모가요.. 오늘이요 축구 경기장 만들 때
멋있다고 해서 좋았어요.
미나이모에게요, 미나이모 그동안
우리가 말을 안 들었죠.
미나이모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키워 줘서 고맙습니다."

보내는 이별 편지...

은지야 언니야 언니가 메남
여해 다 흥한 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 개 각기 언니가 미안해
사랑해

♥ 수정이의 못다 한 이야기

"동생이랑 다한테..
동생들이 착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거..
씩씩이 떠나니까 슬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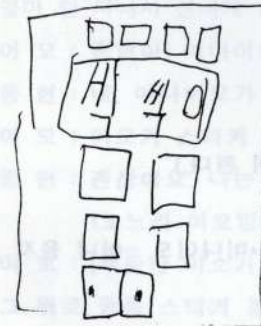
김성운
미나이모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나 기억해
이름 기억해
나라야해

♥ 성운이의 못다 한 이야기

"학교가는 건 조금 기뻐요.
근데 씹씩이 떠나는 건 슬퍼요."

♥ 슬찬이의 못다 한 이야기

"1학년이 되서요, 씹씩이 떠나는데요,
그래서 씹씩이 떠나는 게 싫어서
울면서 가는거예요.
이모들,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예상하계(?) 태어난 여!

12월 마지막날! 한달동안 썩썩이를 따뜻하게 밝혀주던 크리스마스 추리를 철거하고 있었다.

수연이모와 진성이 채석이가 함께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진 성 : (갑자기 눈이 반짝 빛나더니) 이모! 이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모 : (순간 당황하다) 음~ 그렇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

진성이라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니?

진 성 : 아니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자기는 결코 그런일이 없다는 듯

표정지으며 이번엔 옆에 있던 채석이에게 물어보았다.)

진 성 : 채석아 너도 사랑받기위해 태어났나?

채 석 : (잠시 고뇌에 빠지더니) 아니.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진 성 : (이모를 슬쩍 쳐다보더니 채석이에게 귓속말로) 야! 이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네~

진 성, 채 석 : (잠시 숙덕이더니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듯이 이모를 쳐다보았다)

이 모 : (민망)...

☞ 아쉽지만 뽀뽀 할 수 없지!

또래 아이들이랑 소꿉놀이를 하다가 윤지와 이모가 문득 눈이 마주쳤다. 이내 윤지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다가왔다.

윤 지 : 이모~

이 모 : 응. 왜에~

윤 지 : 있잖아요. 네에~. 우리언니 종로에 있는 학교에 간다요!

(윤지에게는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이번에 큰언니가 중학생이 된다.)

이 모 : 어? 그래. 무슨학콘데?

(이 말을 들은 이모들의 속마음 *수연이모 -무슨 특기학교에 가나? / *미나이모 -아니 윤지

네가 이사를 가나? / 인혜이모 -어? 혹시 사립 명문 중학교에가나?

윤 지 : 몰라요!

알고보니 윤지언니가 가는 종로에 있는 학교는 요 앞 건너편에 새로 생긴 종로학원이었다.

☞ 어느 한가한 날의 오후(?)

수연이모가 아이들이랑 코코블럭놀이를 하고 있는데 종현이가 이모에게 볼썽 손을 내밀었다.

이 모 : 응 뭐야?

종 현 : 이모 줄려고 사탕 갖고 왔어요.

이 모 : 그래~ 맛있겠다.

종 현 : 엄마한테 이모랑 나눠먹는다고 사탕달라고 했어요.

이 모 : 그랬어~

종 현 : 수연이모 인혜이모 미나이모 요리이모 그리고 나먹으려고 5개 가지고 왔어요.

이모는 어떤색 먹을꺼예요? (손을 짹 펴보이며)

이 모 : 음~ 이모는 노란색

종 현 : 다른 이모도 줘야지? (부리나케 사라졌다)

한 20분이나 지났나 수연이모는 푸른들 환경관 아래에 있는 교구장에 걸터앉아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종현이가 할 말이 있는 얼굴로 다가오더니

종 현 : (푸른들 환경관에 붙여있는 스티커 붙이기 종이를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나는 스티커가 5개 밖에 없어!

이 모 : (종현이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말을 하지???!!!!)

종 현 : (이모를 슬쩍 한번 쳐다보더니 혼잣말로)

뭐 난 스티커 받으려고 이모한테 사탕준것도 아닌데 뭐~

(매우 아쉽지만 이모가 스티커 안 붙여 준게 몹시 서운하다는 듯이)

이 모 : (아하! 그런 속셈이 있었군~) ☺ 다른 이모한테도 사탕 드렸어?

종 현 : 네에~ 미나이모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모 : 아니 왜?

종 현 : 몰라요(불쌍한 얼굴로)

이 모 : 미나이모한테 다시 달라구해?

종 현 : 알았어요.(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는 듯이)

이 모 : (순진한 녀석! 후후후!!)

얼마 안 지나서 신나게 놀고있는 종현이를 발견한 이모가 종현이에게 물었다.

이 모 : 종현아! 미나이모한테 달라구 했어?

종 현 : 네. 미나이모가 자기 다 주는지 알고 가져갔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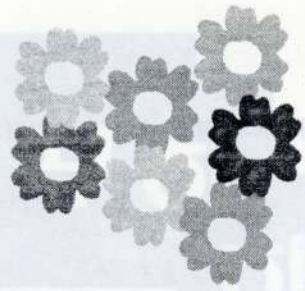
이 모 : 이모가 스티커 안 붙여줘서 서운했니?

종 현 : 괜찮아요. 나는 또 다른 일 해서 받으면 되요

(노느라 이모말에 대답도 채 못 끝내고 달려간다.)

이 모 : (뿌듯한 미소가 머금어진다)

그 뒤로 종종 스티커 붙이기 종이 밑에서 자기 스티커 수를 세고 있는 종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씩씩이를 둘러싼 이런일 저런일

☞ 9월 13일 9월 부모회 - 주제가 있는 반별 모임

큰외반은 '생명의 성과 연결된 성교육', 푸른들반은 '그림책에 관하여', 맑은샘반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 9월 29일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한 가족 나들이

가을가족나들이를 올해는 관악주민연대 주민한마당 행사에 동참해서 경기도 여주군 석수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 죽기 싫어 젓 먹던 힘까지 동원해 떡매를 친 씩씩이 아빠들 덕분에 그날 함께 간 다른 집 식구 300여명도 인절미를 맛나게 먹었고, 비록 비 때문에 준비해간 야외게임을 차안에서 치러내었지만 아빠들의 개인기는 정말 짱이었습니다. 물론 한 바구니씩 캐온 고구마는 나들이에 부딪힘을 더해 주었지요.

※ 10월 3일 씩씩이 새단장 하던 날

소연이가 찢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벽과 달재, 희수, 종현등등이 온 몸으로 부서 논 주름문이 깨끗하게 바뀌던 날, 이모들은 다음 날 환하게 씩씩이를 들어 설 아이들 생각에 힘 든 줄 모르고 도배공사를 치러냈습니다.

※ 10월 18일 씩씩이 아이들 가을 나들이

유모차를 두 대(현도꺼! 종모꺼!)나 끌고 씩씩이 아이들 모두 관악산으로 총출동, 낙엽의 바다에서 뒹굴고 놀다왔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맛난 도시락 먹고, 예쁜 나뭇잎도 주워 모으고 개울물에 낙엽 떨어뜨리고, 막대기로 땅 파고 하는 동안 현도는 유모차에서 내내 잠만 잤다나 어쨌다나. 형아 누나들은 험난한 산줄기에 굴하지 않고 정상 좀 미처 깔딱고개까지 정복해 씩씩이 깃발을 꽂고 오는 쾌거를 올렸답니다. 큰외반 형아, 누나들이 관악산 정상을 정복하러 떠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현도는 여전히 꿈나라였습니다.

♫ 10월 19일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한 양성평등 거리문화제

동송동 대학로에서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문화제"에 이모들과 희수네, 보람이네 달재달순이네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이(물론 이모들도) 준비한 행사로 아이들의 풍물 공연, 외발 자전거타기, 손바닥 도장찍기, 얼굴 꾸미기, 소원나무 꾸미기 등의 부대행사가 열렸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던 것은 양성평등문화를 외치던 보육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부모와 함께 준비해 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10월 24일 10월 부모회 -교육강좌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서정은(숙명여대 박사과정)씨가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를 어른의 권위로 대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한 시간 이었습니다.
한번의 칭찬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의 욕구를 진지하게 듣기, 아이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게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 새삼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생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다."

※ 11월 2일 한국보육교사회 후원 일일주점 다녀왔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에 이모들이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맛난 안주에 맛난 무엇 무엇도 많이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물려들었고 우리 씩씩이 부모님들도 함께(티켓 사시고, 주점에 오시고)해서 더욱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11월 6일 엄마, 아빠 나 건강하지요? - 아이와 이모들 건강검진 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피 땀을 때 난리(?) 칠까봐 생생한 시연을 해 보이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느라. 허나 주사기를 들고 있는 간호사선생님 앞에서 정작 떨고 있었던 건 김모 이모였답니다. 잘 먹고 잘 노는 우리 씩씩이를 역시나 아무 탈없이 모두모두 건강하다는군요.

※ 11월 23, 24일 씩씩이 이모들 대심 바위에 매달려 홍합, 고동 캐다!!

서울지역 보육교사회 회원들과 함께 이모들이 충남 대천 미나이모의 고향집으로 M·T 다녀왔습니다.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밤새워 이야기 나누느라 몸은 비록 지쳤으나 수확물이 없으면 절대로 귀경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 하에 바위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홍합과의 한 판 승부를 승리로 장식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산 홍합의 참 맛을 깨달은 아이들이 지금도 그 때 그 홍합을 찾는다나 어쩐다나.

※ 12월 21일 2002 씩씩이 송년 가족 한마당

지난 5년동안의 공연위주의 송년 가족한마당이 올해는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한편 놀이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씩씩이 곳곳을 누비며(?) 엄마, 아빠 손잡고 뽀기 한번 해 먹고, 얼굴에 예쁜 그림 그리고, 소원지에 소원 적어 줄에 매달고, 가족 모두 손바닥도장 찍어 액자 만들고, 추억의 동전던지기 놀이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엄마, 아빠가 준비한 동극 "혹부리영감 박을 타네", 2주에 걸친 연습과 아빠들의 결함으로 어느 해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준비한 맛난 음식을 먹으며 한 해를 정리하는 씩씩이 식구들의 얼굴이 많이많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추억의 동전던지기에서 조성된 기금은 그 날 저녁 엄마들의 망년회 자금으로 썼다고 미나이모가 꼭 밝혀드립니다.

※ 12월 23일 백두할아버지 오시던 날!!

아침부터 "백두할아버지 언제 와요" "뭐 타고 와요. 정말 구름 타고 와요" "내 선물도 가지고 와요" 쏟아지는 질문에 이모들은 대답해 주느라 바쁜 하루였지만 녀석들은 백두할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문소리만 나면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두루마기 입고, 삿갓 쓰고 허연 수염 휘날리며 두 보따리의 선물을 들고 등장하신 백두할아버지 앞에서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의 초롱초롱한 눈은 어느 때 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썽쟁이 선물을 맨 뒤로 빼돌린(?) 이모들의 심술에 가슴 졸이던 놈들마저도 말입니다.

살림살이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이월금		1,542,710	1,590,430	1,293,220	2,464,770
수 입	보육료	5,355,000	5,268,500	5,083,500	5,071,000
	후원금	70,000	210,000	175,000	70,000
	기 타 수 입	2,070	.	1,870	560,000
	계	5,427,070	5,478,500	5,260,370	5,501,000
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9월	10월	11월	12월
이 선 자	10,000	10,000	10,000	10,000
임 대 진	10,000	10,000	10,000	10,000
장 은 영	.	20,000	20,000	20,000
송 혜 영	.	20,000	35,000	.
김 혜 영	50,000	.	.	.
관악주민연대	100,000	100,000	.	.
서 정 은	.	50,000	.	.
국 선 주	.	.	.	30,000



§ 매주 월요일날
성공회와
(사)관악사회복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지역 후드뱅크에서
빵과 우유,
반찬을
후원해 주십니다.

썩썩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을 잃어버린 아이들.
썩썩한 아이보다는 똑똑한 아이이길 강요받는 아이들…….
썩썩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줄 수 있는 살 맛 나는 세상을,
썩썩이를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한 걸음, 선생님들의 한 걸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의 한걸음이 건강한
아이, 건강한 교육, 건강한 사회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썩썩이 가족이 되실 분을 찾습니다.

▶ 자원활동 하실 분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을 보내 주실 분

국민은행 046-24-0480-276 (예금주 : 김연숙)

▶ 기타 물품후원을 받습니다.

▶ 소식지 원고를 받습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생각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44-14 2층

☎ 872-1781  E-mail ssgi@lycos.co.kr

썩/썩/이/어/린/이/집